

1. 등산의 정의와 역사적 기원

(HY견고딕 , 40 Point)



2008/08/16



등산, 알피니즘 Alpinism

등산가 – 알피니스트 Alpinist

등산학교 – 알파인 스쿨 Alpine school

산악회 – 알파인 클럽 Alpine club

등산용 지팡이 – 알펜 슈틱 Alpenstock

알피니즘 Alpinism 의 정의

등산이란?





알피니즘 Alpinism 의 역사적 기원

- 1760년 스위스 제네바의 대학교수 베네딕트 드 소쉬르가 샤 모니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Mont Blanc, 4807m)을 보고 정상에 오르는 길을 아는 자에게 상금을 줌
- 도를 닦으려 입산하는 사람 ; 승려
약초를 캐는 사람 ; 심마니
짐승을 잡을 목적으로 산에 가는 사람 ; 사냥꾼



알피니즘 Alpinism 의 세계

- 무대 ; 대자연, 정신적이고 육체적
- 등산 : 지식욕, 탐험욕, 정복욕
- 스포츠 : 심판, 규칙, 승부, 관객이 있다. 등산에는 없다
- 프랑스 등산가 리오넬 테레이(L. Terrey, 1921-1965)
: 무상(無償)의 행위



알피니즘 Alpinism 정신과 형식의 변천

- 몽블랑(Mont Blanc, 4807m)의 초등 ; 1786.8.7
- 안내 등반에서 안내자 없는 등반으로
Guided Guideless Climbing

등정주의 Peak Hunting ; 산등성을 따라 정상에 오르는 산행

등로주의와 머메리즘

등로주의 Variation Route ; 산허리나 가파른 절벽에 길을 내며 오르는 모험
등산가 머메리(Albert F. Mummery, 1855-1895) ; More Difficult
Variation Route

머메리즘 Mummerism



등산무대의 변천

알프스의 4000m 급 고봉 – 19세기말 히말라야 8,000m급,
낭가파르파트(8,126m) 1953년 초등 성공

벽등반 시대

1930년대 알프스에서 아이거, 그랑드 죠라스, 마터호른의 3대 북벽
클라이머들의 도전

대원정 시대

1950년대 8,000m봉 안나푸르나 초등
1964년까지 히말라야 최고봉급 14봉이 등정

무산소, 단독, 연속 등반

1978년 라인홀트 메스너(Reinhold Messner, 1944~)
에베레스트 산소통 없이 등정



등산을 어디까지 왔는가

1

더 오를 곳이 없다

- 이 반 쉬나드(Ivon Chouinard, 1938~) : 등산에 있어 속도는 클라이머의 사활을 좌우한다

2

산의 고도와 등산가의 태도

- 고산의 높이와 등산가의 마음가짐 사이에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청된 것

3

편의성과 불확실성(Expediency, Uncertainty)

- 프랭크 스마이스(Frank Smythe, 1900~1949) : 에베레스트 등반에 인공 산소 사용을 반대

- 매너스 : 장비의 과도한 사용에 반대

- 불확실한 것이 없어지고, 불안도 공포도 사라지고, 모험을 찾기가 어렵게 됨



4

등산과 인생

- 영국 등산가 주지 흰치(George Finch, 1888~미상) : 등산은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법
- 등산은 외형상 ; 의식주의 이동
내적 ; 그 자체가 인생이다
- 프랑스 등산가 샤펠리우스 : 등산은 길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gradient with a subtle grid pattern. On the left, there is a large, glowing globe with a map of the world. Several bright, multi-pointed stars are scattered across the upper half. In the lower left, there is a large dandelion seed head, and several smaller ones are shown as if they are blowing away. In the lower right, there is a computer mouse and a keyboard, both rendered in a light blue, semi-transparent style.

감사합니다.